

임금·조건 후퇴 없는 8+8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확인하다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즉각 재개하라

김성락 집행부가 가져온 8+8 잠정합의안이 66.6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됐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매우 깊고 컸다. 찬성률로 치면 역대 최악이다. 특히 화성 공장에선 무려 84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다. 압도적이다.

이 같은 결과의 근거에는 8+9(8+9.33) 도입 이후 강화된 노동강도와 단협 개약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예컨대, 조합원들은 UPH-UP에 상당히 민감하다. 지난해 집행부의 양보교섭 반대를 내건 교섭장 봉쇄 시위가 지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활동가들의 노력도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해 '현장공투'는 항의 시위를 벌여 양보교섭을 막았고, 조합원들의 지지 속에 대의원대회에서 양보안이 폐기됐다. 올해도 교섭장 앞 시위가 조직됐다. 특히 조립공투위가 적극 부결을 선동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8+8'에 대한 지지와 열망이 커졌다. 이번 총회 결과는 이 점을 명백히 보여 준다.

집행부의 왜곡된 평가

그런데 김성락 집행부는 "조합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평가는 거꾸로 하고 있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노동강도나 휴일 유지보다는 임금 보전이 더 중요"했다고 황당하게 평했다. 깊은 반성은커녕, 'UPH를 더 올려 임금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고 조합원들을 은근히 헐박한 것이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꾸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시사한다.

결국 조합원들의 열망을 옳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임 집행부와 유사한 안으로 합의하겠다는 헐박을 통해 조합원들의 열기를 식히려는 것이다.

집행부는 부결 원인을 '반대파'에게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꿈수도 부렸다. 김성락 집행부는 총회 결과를 자기 입맛에 맞게 멋대로 왜곡해선 안 된다.



오랜만에 조립공투위 대의원들이 현장을 돌며 부결을 선동했다.

생산량 보전을 전제해선 조삼모사 밖에 안 된다

전임 집행부의 안과 김성락 집행부의 잠정합의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사측이 요구하는 생산량을 100퍼센트 보전해 임금을 100퍼센트 보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생산량을 90퍼센트 보전해 임금을 90퍼센트 보전 받을 것이냐? 고작 이런 정도의 차이다.

김성락 집행부는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에도 여전히 조삼모사 식 방안을 찾고 있다. 이번에는 임금을 보전하되 노동강도나 휴일을 더 양보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악순환의 원인은 생산량 보전을 기준

으로 놓고, 우리의 임금·조건을 조율하려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도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우리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사측에 제대로 도전하기도, '온전한 8+8'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기도 어렵다.

김성락 집행부와 급속함 활동가들도 이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2012년 8+9 합의 당시 3무 원칙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바로 급속함이다. '집행부 해 보니 현실은 다르더라'는 생각이라면, 뭐 하러 집

행부가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측에 정면 도전하기를 그렇게 겁내서야 조합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총회 결과는 생산량 보전을 전제한 합의가 조합원들의 요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줬다.

잠정합의안 부결을 선동한 이들 사이에서도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온전한 8+8 쟁취' 투쟁에 진지한 활동가라면, 생산량 보전 논리를 깨고 3무 원칙을 옮겨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투쟁의 대안을 구축해 나가자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온전한 8+8 쟁취'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을 보여 줬다. 이런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 성과를 내려면, 투쟁이라는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집행부가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질질 끌며 기층의 열기를 식히고 다시 비슷한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들이

밀곤 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감해 했고, 결국 부족한 합의안이 통과되곤 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재개해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임단투를 앞당겨 투쟁을 더 강력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김성락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뜻을 왜곡하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다. 집행부가 계속 투쟁을 회피하고 조합원의 열망을 저버리려 한다면, 현장 활동가들이 부결 선동에 나선 것처럼 투쟁을 건설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투쟁을 선동하고, 조립공투위·대의원대회 등에서 잠정합의의 부결의 의미를 올바르게 대변하며 투쟁 재개와 3무 원칙 등을 호소해야 한다.

기아차의 '온전한 8+8' 투쟁이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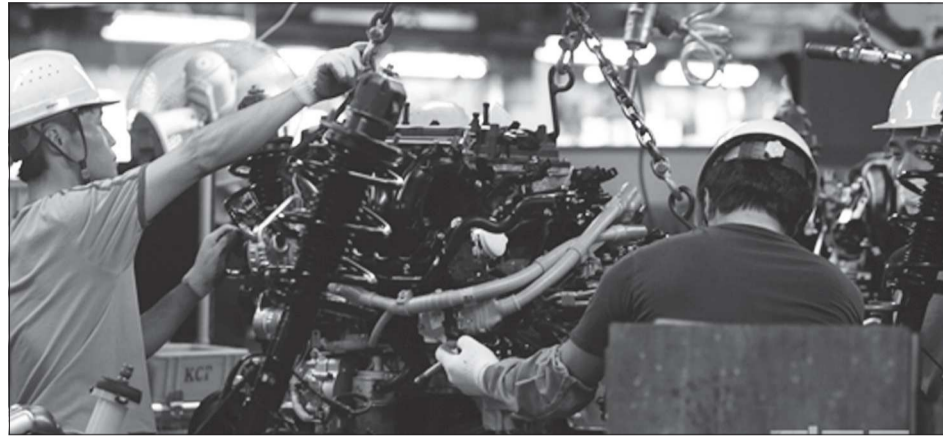
3년 전까지 기아차 노동자들은 주야 10+10 근무에 시달렸다.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은 하루 종일 공장을 돌려 설비 효율을 높이려고 밤샘 노동을 도입했다. 야간조는 거의 산송장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맡기고 오전 7시경까지 일했다.

이런 우리에게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매우 사활적 과제였다.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은 지난 십 수년간 주간2교대 도입을 외치며 싸웠다. 2012년에 현대·기아차지부는 2년의 무쟁의를 깨고 투쟁에 나서, 8+9 근무제를 도입케 했다. 이는 부품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2015년 현재 부품사 50여 곳에 이 제도가 도입됐거나 준비 중이다.

그런데 사측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않았다. 저들은 생산량이 20퍼센트가량 줄어드는 데 노발대발하며 '생산량이 보전돼야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아쉽게도 당시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이에 타협했다. 집행부는 투쟁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는 생산량 보전을 전제로, UPH-UP, 휴일·휴게시간 축소, 이중 임금제 도입 등 양보협상을 타결 지었다.

이는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3무 원칙' 즉,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유연화(전환배치, 외주화 등)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후퇴시킨 것이었다. 그 뒤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량 보전 논리가 크게 자리잡았다. 부품사들에서도 후퇴가 잇따랐고, 올 초 현대차는 8+8을 도입하면서 또다시 노동강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정몽구의 부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도를 높였다.

그러나 '생산량 보전' 논리는 거스를 수 없는 전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

고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주5일제 투쟁에서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막아 낸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2013년 초에 현대차 노동자들은 8+9

도입 시 특근 수당이 삭감된 데 항의해 현장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 기아차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잠정합의안을 높은 반대로 부결시킨 것은 매우 의미 깊다. 이는 임금·노동조건 후퇴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보여 줬다.

특히 기아차지부는 금속노조의 양대 기둥 중 하나다. 기아차에서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을 쟁취한다면, 이는 노동운동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전제를 깨고 투쟁의 올바른 '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할 열쇠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조직과 투쟁 전통을 가진 기아차 노동자들은 이를 쟁취할 힘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가 발흥했던 초기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1886년 5월 1일에는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시행을 요구하며 시카고 전역에서 총파업을 벌였고, 국제노동자협회는 이날을 국제 노동자 투쟁의 날, 즉 세계 노동절로 지정했다.

이후 1917년 러시아혁명은 8시간 노

동제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혁명을 성공시킨 소비에트 노동자 권력은 "노동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넘거나 1주일에 4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됐다.

그 뒤에도 국제 노동운동은 주 단위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했다. 1936년에 40시간제를 쟁취한 프랑스 노동자들은 1998년에 주

35시간제를 따내기도 했다.

물론, 이 투쟁의 역사는 단선적으로 발전해 온 것만은 아니다. 자본가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노동강도를 높이고 손실을 만회하려 했고, 노동운동이 약화됐을 때는 법·제도를 개악하거나 실노동시간을 늘리곤 했다.

요컨대, 노동시간은 서로 대립하는 양 계급의 투쟁,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돼 왔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계약 저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등을 위해

5월 1일 세계 노동절대회에 참가하자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세계 노동절이 올해로 126주년을 맞이했다. 세계 노동절은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수십만 파업으로 기록된 거대한 투쟁은 곳곳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었고, 다른 투쟁을 고무했다.

1890년부터 세계 노동절 대회는 국제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는 날로 자리잡았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 당시 세계 노동절대회는 반전 운동의 기폭제 구실을 했고, 1917년 러시아에선 혁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한국에서도 세계 노동절대회는 1920년 일제 식민지 하에서 개최된 이후 미군정, 독재정부, 문민정부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전쟁과 파시즘에 맞섰고, 여성과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했고,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섰다.

특히 올해 한국의 노동절 집회는 얼마 전 총선에서 박근혜가 패배하고 노동계급이 전진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계약 저지, 최저임금 1만 원 등의 요구를 걸고 대규모 집회와 행진

을 벌일 예정이다. 이 대회에 함께 참가해 투쟁과 연대의 기운을 만들어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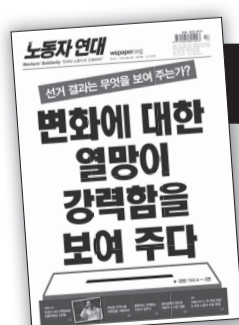
2016 5.1 세계노동절대회

일시: 5월 1일(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대학로(수도권 서울·경기)
주최: 민주노총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김우용(010-3092-9003)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